

임업계 종사 40여년

회장 이재석

1. 머리말

오는 이천일년 2월 한국양묘협회 정기 총회때 나는 임기가 끝남으로 임업공직생활 43년을 마감하게 된다.

한사람이 너무 오래 회장직에 머물었고 생산자 협회는 생산자 대표가 회장을 해야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변함이 없을뿐만 아니라 때마침 지금은 서울양묘협회 시대를 마감하고 대전 양묘협회 시대를 열어가는 마당에 양묘협회도 보다 젊은 새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글은 평범하고 소박한 개인의 이력을 이곳에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이 우리 산림양묘의 이면사를 이해 함으로서 우리 조림양묘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임업에 기여 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저 지난 40여년간의 필자의 임업공직 생활중에 생각나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 보고자 한다.

2. 농림부 시절

나는 1958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림부에서 농림행정 보조원 채용시험이 있어 그때 전국에서 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157명과 경쟁시험을 치러 농림본부에 3명을 채용하는데 한사람으로서 그 해 5월18일 발령을 받았으니 그때 취직운은 꽤 좋은 편이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산림은 8.15해방과 6.25동란을 겪는 동안 산이 황폐 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방사업이 한창인때였다.

그때 정부는 최단기간에 이 사방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돈이 많이 드는 옛날사방공법으로는 예산도 문제고 공법도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O.E.C 원조에 의한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기술문제는 O.E.C 상류수원함양사업 기술고문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이른바 파식(播植)위주의 풀씨사방을 할 때였다.

이때 많은 O.E.C 기술고문들이 와서 정부에 자문도 하고 현지 지도도 할무렵 나는 이분들과 같이 각도에 출장하여 사방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학창시절에 사방공학을 학교에서 배웠고 방학때면 한두달씩 사방 현장에서 실습도 했다.

때문에 사방공학 학점은 늘 최고 점수를 받았고 경험은 적지 않은 파식위주의 사방공법에 의구심

이 생기기 시작 하였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우리산은 모암이 풍화하기 쉬운 화강암인 동시에 경사가 급하고 또 비가 7~8월에 편중하여 내리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땅값보다 더 비싼 공비(工費)를 투입하여 사방하는 기술 문제를 O.E.C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하여 이 풀씨사방이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이를 재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번 개진하는 동안 나는 지금 우리 양묘협회와 관련이 있는 조림양묘부서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 근10여년간 농림부 및 산림청 공무원 생활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농림부 시절에는 월급은 적어도 중앙청 공무원이란 자부심이 있었는데 산림청이 되고 보니 이 기분도 없어지고 나는 부모님 덕분에 대학을 다녔는데 공무원 생활하다가 자녀들 교육도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중앙공무원이 아무 하자 없이 협회로 전직한다는 것은 모험이었다.

그래서 상사, 동료,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을 물리치고 1972년 9월 30일 공무원 옷을 벗고 양묘협회로 옮겨와서 이곳에서 28년간을 보냈다.

3. 양묘협회 시절

1972년 10월 1일 한국양묘협회상무이사과 (주)영림공사 상무이사과 겸임 발령을 받고 월 90,000원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

농림부에서 월 35,000원 월급이었는데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입이 늘어났다.

처음 협회로 나온 소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곳은 대학 졸업생이 필요없는 곳이라 생각이 들었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묘자금 조달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묘란 자본집약사업이라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 자금은 이자가 비교적 싼 농협단체자금을 용자 받아 쓸때였다.

농협단체자금의 한도액은 적고 농업단체들의 자금 수요규모는 크고해서 농협단체간에 서로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해서 유능한 단체이사가 될려면 이 자금을 많이 타 오는 것이 었다. 자금조달액도 조달액이지만 이 자금이 회원상호간에 보증한 신용 용자이기 때문에 천재로 인한 재해가 큰해는 자금상환 재원이 없는 불신채무자가 생길때 모든 책임이 법인으로 돌아와 큰 문제가 되어 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농특회계 자금으로 전환한 후는 이런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 되었다.

이제는 자금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산림정책 담당자가 바꾸어 질때 마다 생산주체간에 양묘사업 비율이 달라지는데 생산주체란 산림계양묘 마을양묘 기관양묘 산림조합양묘 기업양묘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주체간에 많은사업량을 배분 받아야 유능한 단체가 된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산림사업에 기본이되는 산림종묘정책이 우량종묘를 싼값에 생산 공급할수 있겠느냐에 역점을둔 정책이 아니라 양묘소득의 재분배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으니 산림종묘정책이 부

재(不在)한시절이었다고 볼수 있다.

지금은 산림양묘량도 줄고 또 어느정도 질서가 잡혀서 양묘주체가 기술자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종전 같은 문제점은 없어진 것을 큰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기술자 중심의 종묘판매업등록업자 중에서 지정 생산자 제도를 자유생산체제로 바꾸느냐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둘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산림양묘의 당면 과제는 구조조정임으로 지정생산제도를 택할수 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여기에 생산 추제한 양묘지정 문제에 있어서 과거 너무 쓰라린 경험을 하나 적어보면 1972년도라고 생각이 된다. 그때 정부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5년후인 1977년부터는 기업양묘, 산림조합 양묘등은 전부 없애고 마을양묘로 일원화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당국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묘협회를 우선 없애는 일이었다.

1973년 어느날 수사기관 여러사람이 협회에 와서 책상, 캐비넷 등을 전부 봉쇄하고 일주일 동안 협회 비리를 조사한 일이 있다.

불행중 다행으로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는 협회 본래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체라는 결론이 나서 화를 면하기는 하였지만 몇십년간 경험과 기술축적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의 주권을 마구 짓밟으려고 했던 것은 장인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와 경제발전에 너무 큰 걸림돌이 되었다.

오죽 했으면 이때 정치바람을 막기 위해 정당에 가입해 정치에 입문할 생각도 해 본적이 있다.

다음으로 협회 업무중에 일년에 한번씩 홍역을 치루어야하는 문제는 산림종묘가격 문제다.

양묘경비 즉 생산비의 대부분이 노임인데 종전에 현실화 안된 정부 노임단가 적용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하루 아침에 교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해마다 가격을 결정하는 산림청과 생산자 단체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그것도 만성이 되고 말았다.

가격 결정문제는 종전에는 산림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을 법령을 개정하여 종묘가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가격인자도 법령으로 정하여 적정가격으로 사정토록 제도적 장치가 되는 한편 종묘가격의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에 농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양묘가격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음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현실화 해서 우량 건묘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산림자원조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 산림묘포에서 연중행사처럼 일어나는 천재(天災) 즉 한해, 폭풍우해, 동해등으로 인해 재해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를 위해 산림법을 개정하여 정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의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 할수 있도록하고 산림묘표 재해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림부분의 재해보상제도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제도요 규정이란 평을 받고 있으나 이것도 실비보상에 가까운 규정이 되도록 손질을 해야할 형편에 있다.

다시 말하여 지금 정부가 묘목생산비의 2%를 재해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평균재해액

의 30%이상 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묘협회에 와서 1년에 한번씩 꼭 회지를 발행 했다.

2000년 말 현재 통권 제28호를 발행하게 되는 바 산림청 관련단체중 역사도 깊지마는 회지를 낸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회지 내용은 양묘기술보급 당면한 논단 수요가격정보 협회 소식등이 기록되어 양묘기술 보급은 물론 양묘 정보 교환에 밑거름이 되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회지도 1년에 한번을 낼것이 아니라 3~4회 계간으로 내서 발전을 해야할 욕심은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유감이다.

이상과 같이 한일 중에는 협회가 해야할 본연의 일들이 있기는 하나 본연의 의무가 아닌곳에 너무 힘을 쓰다보니 우리나라 양묘가 지향해야할 당면 과제로서 양묘의 구조조정문제를 비롯하여 묘포사업의 기계화 문제 품종에 대한 산림종묘 감독등 양묘의 전문화를 기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했어야 하는데 생산 주체가 살아 남기 위한 일에 전력 투구를 했으니 정치와 행정의 결국 우리 산림양묘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된것은 후진국 기술행정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 다고 볼 때 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할 것으로 본다.

4. 농림신문과 양묘협회

임업부에서 임업 전문지 신문을 하나 발행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1974년 11월에 농림신문 신효당사장이 한국양묘협회 양봉석 회장에게 농림신문사를 넘겨주고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다.

그 당시 양봉석 회장이 신문사를 인수 했지만 사실은 그 신문사 주주가 모두 양묘협회 회원이었다.

당초 이 농림신문을 인수한 목적은 우리 임업발전을 도모하기위한 뜻도 있었지만 당시 양묘협회의 운명이 산림양묘의 전량이 다 마을 양묘로 넘어가게 되면 양묘협회는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농림신문을 인수해서 산림양묘는 법으로 정한 기술자가 해야 된다는 정론을 펴고 기술 혹은 정책적인 대안을 내 세워 여론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인하여 나는 그때 양묘협회 전무이사과 농림신문사 전무이사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그 때 신문사에 사설을 쓸 마땅한 사람이 없다보니 부득이 이를 내가 맡게 되었다.

주간신문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설을 써야하는데 이것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크게는 우리 임업을 위한 것이고 작게는 우리 양묘협회 회원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우리의 주장을 대변해 오던중 1980년 7월 31일 당시 국보위(國保委)에 의하여 신문 등록이 취소되면서 신문 발행이 중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사람이 양묘협회 영림공사신문사 전무이사일을 다 맡아서 보았는지 꿈같은 생각이 난다.

이러한 홍보와 이해로 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4년 앞당겨 달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대학교수, 임업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산림양묘는 마을양묘를 지양하고 기술자 중심으로 일원화 해야 된다는 보고서에 의해 마을 양묘가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산림조합양묘가 또 문제가 되었다.

산림조합이 양묘를 하면 세금을 안내는 법인과 개인이 경쟁한다는 것은 우선 형평성 원리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이 경쟁한다는것도 모순이며 조합의 본연의 임무가 조합원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지도등 인바 이를 하지 않고 조합원과 영리사업을 경쟁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시 법을 개정해서 산림조합양묘는 점진적으로 없애고 최근 양묘 기술자 중심으로 생산 체계가 단일화 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나는 그때 신문사설 잡지들에 발표한 원고를 모아 그후 약150여편에 달하는 산림논설 책자를 발행한바 있다. 아마 이 책은 우리 임업 근세사를 엿볼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나는 40여년간 우리 조림양묘 분야에서 일을 해 왔지만 이 조림양묘에 대하여 일가견은 있어도 이렇다 할 정론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 임업계 특히 산림관공서 대학 연구기관 독립가 양묘가들도 정부수립 50년이 넘도록 우리 조림양묘의 기술 정립이 못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도 활엽수대 침엽수조림비율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식재본수도 왜 ha당 3000본을 심는지 10,000본을 심는지 그 기술 내용을 엄밀히 아는 사람은 적다.

뿐만 아니라 옛날 교과서에 택벌이 벌채 방법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으므로 이를 신앙처럼 신봉 한다.

나는 짧은 경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택벌갱신은 안된다고 보는 사람이다.

택벌로 갱신조림한곳은 거의 실패한 것을 보았고 경험도 했다.

지난날 우리 임업과 양묘는 정치와 행정이 기술을 앞질러 자행 되었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 임업에 있어 경험과 기술을 도외시 하면 산을 상대로 해서 시험(試驗)밖에 할수 없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 임업문제는 경험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임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곳에 임업에 고민이 있다.

또 근자 우리 임업문제에 있어 최대한 문제점은 임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했을때 그 필연적인 결과가 곧 최선의 환경이 되는것인데 임업은 도외시 하고 환경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산림의 소유구조로 부터 경제 체제를 모르는 이상주의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임업지식인이 근자 많은 것은 경계할 일이다.